



무주군민화합 신년 인사회가 지난 18일 무주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행복한 무주 군정목표로”

군민화합 신년인사회

무주군민화합 신년 인사회가 지난 18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대표 문기득)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황의탁 도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반딧불축제 영상물 시청과 함께 새해덕담, 소망 떡 자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변화의 정점에서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직면했던 우리 군은 여러분의 응원과 공적자들의 노력 덕분에 희망찬 미래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며 “올해는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일구겠다는 군정목표를 실현해야하는 원년으로 세계적 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직하고 투명하게 군정을 펼치겠다는 초심과 지역과 군민을 향한 오늘의 각오를 마음에 새기면서 행복이 일상이 되는 무주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올해 관광과 농업, 복지, 지역개발, 행정 등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으로 특히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주도

하기 위한 무주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대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과 무주사랑상품권 발행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외 제 값 받는 농정실현과 안정적인 관로 확보를 위한 신 유통체계 구축을 비롯한 태권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태권브이랜드 조성, 어르신들을 위한 ‘실검’ 프로젝트 추진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경관녹지분야 산림사업 박차

6개 분야 실시설계 용역 발주... 9억원 투입 계획

진안군은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미관개선을 위해 경관녹지 산림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올해 6개 경관녹지 분야에 약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각 3억원 ▲청소년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상숲 조성에 6000만원, ▲마을숲 생

태적 심미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통마을숲 복원에 1억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 나눔숲 조성에 9,000만원, ▲농산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풍경있는 농산촌 가구기에 7,000만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과 전라북도의 농산촌 가구

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대거 확보했다. 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잔액을 활용한 실시설계 용역을 미리 발주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월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지속적으로 경관녹지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살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투입

30일 상전면 다목적실내구장서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0억5,8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30일 오후 2시 상전면 다목적구장에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주민 지원 사업 지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

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진안읍을 비롯해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등 총 7개면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간 공금했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직접 금강청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직접지원 대상자와 주민 지원사업 대상 주민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

장수군은 오는 24일까지 발작물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인 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발농업의 기계화율을 올리기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발작물을 파종에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내구연한 동안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작년에 2개소를 선정하여 장기임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1개소(풍)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발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 농가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사랑 나눔 헌혈운동’ 실시

장수군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23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주민을 대상으로 수혈용 혈액확보를 위한 헌혈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매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보내 수요처(병·의원)에 혈액을 공급하여 주민 생명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 헌혈자는 금주, 과로는 피하고, 4시간 이상 숙면과 당일 식사는

필수이며 전염성질환 및 간염 보균자 또는 병원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헌혈에 참여 불가하지만 헌혈 가능하며 헌혈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치매예방교실 지역강사 위촉

무주군은 지난 18일 ‘치매걱정 없는 무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의 지역강사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경로당 매칭 및 운영방법을 공유하고 치매파트너 교육을 비롯한 치매 예방 체조 교육을 함께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우리 군에게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치매걱정 없는 무주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무주군,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 확대

생계 월 119만원, 의료 1회 300만원 최대 2회까지

무주군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2019년 상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원(자살예방·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담당자들로 위기 발굴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6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해 취지를 공유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김성욱 희망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에 따르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1억 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되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군청 사회복지과 및 각 읍면, 보건의료원)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된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 4천 9백 원(4인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의 경우는 1회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무주군 사회복지과,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